

한국 아동의 기질 : 비교문화적 분석*

Temperament of Ethnic Korean Children : A Cross-cultural Analysis*

박혜원(Hyewon Park Choi)¹⁾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emperament of ethnic Korean children residing in Korea comparing them with Korean children and American children residing in the USA. Parents of 169 Korean, Korean-American and American 4- 7-year-old children rated them on the Very Short Form of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 Rothbart et al., 2001). On most subscales, Korean children were reported higher than ethnic Korean children in the US while Korean-American children were rated lower than others. Attention focusing was influenced by macro systems; shifting and impulsivity were more sensitive to biological or micro systems. The bilingual setting of Korean-American children may explain the difference in control of this group from others. This study clearly showed that ecological settings play important roles in temperament.

Key Words : 간편형 CBQ(The very short form of CBQ), 기질(temperament), 미국인(American), 이중언어자(bilingual), 한국인(Korean), 재미동포(Korean-American), 4-7세 아동(4-7 year olds).

I. 서 론

Allport(1961)는 기질을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반응의 강도와 속도, 주된 기분의 질을 포함하는 개인의 정서적 본성의 특징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유전적인 구조적 틀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Allport는 주

로 정서적인 반응성에서의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기질에 대한 발달적 연구기틀을 확립한 Thomas, Chess와 Birch(1968)도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는 구조적인 기질을 지닌 기질을 관찰하고 주의와 활동수준에서의 개인차를 추가하여 기질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보다 최근 신경생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Rothbart와 Bates(2006)

* 본 연구는 2007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신 박민정·이현주·장수진에게 감사드린다.

¹⁾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San 29 Mugeo-Dong, Nam-Gu, Ulsan 680-749, Korea
E-mail : hyewonc@ulsan.ac.kr

는 기질을 정서, 활동, 그리고 주의의 영역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형성된 반응성과 자기 통제에서의 개인차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질을 사고, 기술, 습관, 가치, 방어, 도덕, 신념, 사회인지 등이 포함됨 성격(personality)과는 구분하고 있다 (Rothbart & Derryberry, 2002). 성격적인 것은 일관적인 사고, 정서 행동의 유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반면 기질은 특정한 사고나 방어기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반응성과 자기 통제의 기초과정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질은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Gesell (1937)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선천적이며 구조적인 특성을 위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ochanska(1995)는 기질이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같은 기질도 다양한 경로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기질의 아동이 또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발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othbart와 Bates(2006)도 최근 안정되고 불변한 특성으로서의 기질에 대한 초기 견해는 환경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 변화되는 보다 역동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능한 기질개념의 등장은 자연히 영아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질연구를 영아기 이후의 여러 발달 단계로 확장시키고 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기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환경의 변화 또는 서로 다른 문화에 거주하는 집단간 기질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면서 기질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맥락을 고려한 생태학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아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유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며 구조적 특성을 지닌 개인차의 본질로서 기질을 밝히며 체계적인 기질연구를 시작한 Thomas와 Chess(1977)도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통해 기질의 안정성은 환경 변화의 함수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기질이 아동의 비행이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특성과 환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아동 자신이 지니는 능력, 특징 그리고 행동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기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원영미, 1989).

기질은 개인이 타고난 고유특성이기는 하지만 한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바람직하게 간주되는 기질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나 기타 환경이 바람직하게 간주되는 기질의 성향은 조장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질의 경우에는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기질을 지닌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할 때 적응도는 달라질 것이며 문화에 따라 기질의 특성도 달라질 것이다. Kohnstamm(1989)는 실제 각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기질 특성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질에 미치는 거시체계의 영향분석이나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 아동의 비교연구이며 동서양에 걸친 연구는 미국과 중국 또는 일본 아동의 기질을 비교하여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Ahadi, Rothbart, & Ye, 1993; Freeman & Freeman, 1969; Gartstein, Slobodskaya, & Kinsht, 2003; Windle, Iwawaki, & Lerner, 1988)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기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 서양에서 개발된 기질 도구의 타당화 연구들(위영희,

1994; 이경옥, 2004; 조수철·김종훈·최진숙, 1992; 최성구 등, 1999; 천희영, 1991; 최영희, 1988)과 기질이 사회적 관계와 발달의 여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영희, 1996; 장영숙·조정애, 2000; 장유경·이근영, 2006; 정은숙, 1984; 정현희·최경순, 2001; 천희영, 1993, 2006; 표미정, 1997; 홍계옥, 2001). 한국형 기질검사의 타당화연구들에서는 외국의 타당화자료와 비교하여 한국 아동의 기질특성을 엿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한국 아동의 기질을 외국 아동의 자료와 비교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원영미·박혜원과 이귀옥(2004a), 박혜원과 박민정(2005)은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기질을 보고하는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을 뿐이다. 조선족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질은 한국아동과 한족 아동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니며 특히 친화성과 같은 이민족의 적응에 필요한 특성이 높음을 보고하여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동포 아동과 한국 아동 그리고 미국 아동의 기질을 비교함으로써 한민족 아동이 한국과 미국 즉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 등으로 대표되는 서로 상이한 문화에서 성장하는 경우 어떠한 공통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 울산에 거주하는 4-7세 아동 54명과 이들 또래의 미국 아동 62명 그리고 이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53명의 아동에 대해 부모의 기질평정자료를 수집하였다. 재미동포와

미국 아동은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과 근교인 타코마 등에 거주하는 아동이었다. 이 지역은 한국인이 최근 급속히 이주하기 시작하여 미국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와 함께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거촌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자료의 경우 Washington 대학의 연구절차(Human Subjects Committee)에 연구계획허가를 받은 후 대학 홈페이지, 연구자 홈페이지, 지역 사회 기관 등에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들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이 사는 지역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중심으로 Boeing사, Microsoft사 등이 있어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한국의 산업 수도인 울산지역과 그 인구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재미동포 아동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1.5세대 이상(2, 3세대 포함)이었다.

2. 연구도구

사용한 기질 검사는 Rothbart, Ahadi, Hershey와 Fisher(2001)가 개발한 The Very Short Form of CBQ(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간편형)이며 영어와 한국어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의 경우 기질 중에서도 주의집중(attention focusing), 주의전환(attention shifting), 충동성(impulsivity), 그리고 주의통제(attention control)의 주의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주의집중 하위척도 14문항, 주의전환 하위척도 5문항, 충동성 하위척도 13문항 그리고 주의통제 하위척도 13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1-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영어로 된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유아교사, 어린이집 교사등과의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였고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는 .65-.85

사이였다. 한국 아동의 부모에게는 한국어, 미국 아동의 부모에게는 영어 그리고 재미동포 아동의 부모에게는 영어와 한국어중에서 편한 것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한국 아동의 경우 울산광역시내 7개 유아관련 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중 해당연령에 해당되는 유아를 선별하여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 후 취합된 부모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 워싱턴대학 아동연구실에 부모가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치와 추리통계치(t , F)를 산출하였으며 집단비교를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69명의 한국 아동과 미국내에서 거주하는 아

동의 기질을 살펴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아동과 재미 동포 및 미국 아동의 기질 평정에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한민족이 한국에 거주했을 때와 미국에 거주했을 때 기질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의 기질은 또래의 재미동포 유아에 비해 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정되었다. 한국 아동은 재미 동포 아동보다 주의 집중($F=47.11^{***}$)과 주의 통제($F=14.37^{***}$)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정을 받았는데 주의 집중의 경우 미국 아동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주의 통제의 경우는 미국아동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주의 전환과 충동성은 한국 아동과 재미동포 아동의 기질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들 두 한민족집단과 미국 아동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39^{***}$, $F=5.09^{**}$).

집단별로 성차를 쉽게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1>에서 보면 재미동포아동과 미국 아동의 경우 남녀간 기질차이가 없었으나 한국 아동의 경우에만 성차가 있었다. 주의집중(4.62 vs. 5.08, $t=-2.47$, $p<.05$)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충동성(4.07 vs. 3.63, $t=-2.48$, $p<.05$)은 여아가 남아가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한국 아동에

<표 1> 기질 차원에 따른 한국 아동과 재미 동포 및 미국 아동의 성별 기질평정

기질	한국 아동				재미 동포				미국 아동				집단 비교
	계 (N=54)	남 (N=27)	여 (N=27)	t	계 (N=62)	남 (N=40)	여 (N=22)	t	계 (N=53)	남 (N=30)	여 (N=23)	t	
주의 집중	4.85 _b (.70)	4.62 (.62)	5.08 (.72)	-2.47*	3.90 _a (.68)	3.90 (.59)	3.91 (.82)	-.08	3.74 _a (.51)	3.72 (.52)	3.77 (.50)	-.35	47.11***
주의 전환	4.13 _a (.79)	4.10 (.54)	4.17 (.98)	-.34	4.20 _a (.80)	4.24 (.80)	4.12 (.80)	-.57	4.71 _b (.70)	4.70 (.77)	4.73 (.60)	-.16	9.39***
충동성	3.85 _a (.68)	4.07 (.60)	3.63 (.70)	2.48*	3.97 _a (.61)	4.04 (.59)	3.83 (.65)	1.20	4.20 _b (.44)	4.25 (.42)	4.14 (.46)	.96	5.09**
통제	4.82 _b (.68)	4.64 (.61)	5.00 (.71)	-1.96	4.25 _a (.53)	4.21 (.52)	4.24 (.48)	-.76	4.60 _b (.36)	4.56 (.39)	4.65 (.32)	-.86	14.37***

* $p<.05$ ** $p<.01$ *** $p<.001$

서도 주의전환과 통제에 있어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 의

안정되고 불변한 특성으로서의 기질에 대한 초기 견해는 환경과 발달에 따라 변화되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Rothbart & Bates, 2006). 기질의 안정성은 절대적이 아니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Thompson, Lamb, & Estes, 1982).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이들이 속한 문화를 반영하여 부모들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 부응하고 문화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양육한다(박혜원·박민정, 2005; Kohnstamm, 1989). 따라서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라는 미시적 환경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7세 사이의 한국, 재미동포,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attention)와 관련된 기질(주의집중, 주의전환, 충동성 및 통제)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와 민족성이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아동의 기질이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정되었으며 재미 동포아동은 미국 아동보다는 한국 아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아동은 재미동포 아동보다 주의집중($F=47.11^{***}$)과 주의통제($F=14.37^{***}$)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정을 받았는데 주의집중의 경우 Scheffe 검증에서 미국 아동보다도 유의하게 높게 평정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집단간 차

이를 보인 주의집중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시적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의전환과 충동성은 한국 아동과 재미동포 아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한민족 아동과 미국아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주의 전환과 충동성은 한국 아동과 더 유사하여 이 기질 차원들은 보다 구조적인 기반을 지니는 것이거나 가족관계 등 미시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의 통제의 경우는 한국 아동과 미국아동은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재미 동포아동만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원영미·박혜원·이귀옥, 2004b; 이귀옥·전효정·박혜원, 2003; Ben-Zeev, 1977; Bialystok, 2001; Bialystok, & Majumder, 1998;)에서 이중언어자가 높은 통제력을 나타낸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재미 동포아동보다 주의 통제력이 높아 주의통제가 이중언어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관찰되었으나 그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즉 주의통제(Control)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중언어사용에 따라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중언어자의 통제성의 향상은 이중 언어 발달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동포 아동의 경우 조선족과 같이 2개 언어를 완벽히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어 능력이 영어능력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주의 통제 향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차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아동집단에서는 주의집중과 충동성에 있어 남녀차이가 유의하였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근 박혜원(2009)은 출산 시 남녀비율을 조사하여 21세기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서 성차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의 자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기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하위 차원에 따라 달라지며 재미 동포아동은 미국 아동보다는 한국아동과 유사하나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아동과 한국 아동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선족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민족적 뿌리가 같은 한국 아동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배경이 동일한 현지 한족 아동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원영미 등(2004a)의 연구와 일맥 상통한다. 앞으로 기질 차이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환경의 특성을 보다 명료화하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원영미 등(2004a), 박혜원과 박민정(2005)의 연구에서 흔히 동양권이라고 동일하게 간주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환경이 다른 조선족이라는 세 집단의 아동이 기질 비교시 조선족 아동은 이주민족이라는 특성에 따라 친화력과 같은 특성이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비교문화에서 동일한 동양 문화권으로 간주되어왔던 중국과 한국 아동이 기질에서 차이가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보다 세부적인 문화특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과 서양으로 분리하여 진행되어 온 비교문화 연구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비교 등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연구자들은 해외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동포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기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로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교류가 많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들 간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재미 동포나 미국 아동의 경우 미국에서도 극히 소집단이며 한 지역에 만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지리적인 방대함과 주별 차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자료를 미국 전체 아동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방대한 국토와 지역별 문화차이가 커서 동일한 한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조사한 연구(Lai, Zhang, & Wang, 2000)에서 기질에 있어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차원 중 주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사회성과 활동성 등의 전반적인 기질차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전형적인 기질 차원을 포함한 기질 검사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연구집단의 기질검사 실시방법에 차이가 있어 한국 아동의 경우 교사를 통해 부모에게 배부되어 수집되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 워싱턴대학 아동연구실에 부모가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어떠한 일관된 반응오류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아동의 연령을 영유아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형민·박혜원·김말경·장유경과 최유리(2008)는 최근 유아기동안의 단기종단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보다 긴 종단 연구를 통해 유아기 기질특성이 다양한 근접과정변인의 영향으로 청소년기의 부적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박혜원(2009). 한국아동의 발달과 발달환경.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5월 1일. 한양대학교.
- 박혜원·박민정(2005).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모친의 양육태도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질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27(2), 63-80.
- 원영미·박혜원·이귀옥(2004a).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 원영미·박혜원·이귀옥(2004b). 이중언어 사용이 선택적 주의에 미치는 영향 : 연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선택적 주의수행 비교. *이중언어학회지*, 26(2), 125-136.
- 위영희(1994). 영유아 기질 측정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귀옥·전효정·박혜원(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계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7), 1-14.
- 이형민·박혜원·김말경·장유경·최유리(2008). 유아 기질의 안정성-단기종단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6(7), 48-58.
- 장영숙·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장유경·이근영(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 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1-274.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기질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희·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 조수철·김종훈·최진숙(1992). 한국판 기질평가척도 개발. *신경정신의학*, 31(2), 363-383.
-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2006). 아동의 기질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 1980~2004. *아동학회지*, 27(4), 17-22.
- 최성구·김승태·이소영·정유숙·홍성도·김이영(1999). 아동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201-210.
- 최영희(1988). RITQ의 타당성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89-102.
- 표미정(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1993). Children's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7.
- Allport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n-Zeev, S. (1977).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strategy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8, 1009-1018.
- Bialystok, D. E. (2001). *Bilingualism in development :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on*.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alystok, D. E., & Majumder,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bilingualism and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processes in problem solv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65-8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 Freeman, D. G., & Freeman, N. A. (1969). Differences in behavior between Chinese-American and European-American newborns. *Nature*, *224*, 1227.
- Gartstein, M., Slobodskaya, H., & Kinsht, I. (200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4), 316-328.
- Gesell, A. (1937). Early evidences of individuality in the human infant. *Science Monthly*, *45*, 217-225.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597-615.
- Kohnstamm, G.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 Cross-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483-508). Chichester, England : Wiley.
- Lai, A., Zhang, Z., & Wang, W.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Rothbart, M. K., Ahadi, S. A., Hers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othbart, M., & Bates, J. (2006). Temperament. In Nancy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6th Ed.).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 Rothbart, M., & Derryberry, D. (2002). Temperament in children. In C. von Hofsten & Baeckman(Eds.), *Psychology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 Vol.2.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17-35). East Sussex, England : Psychology Press.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 Press.
- Thompson, A., Lamb, E., & Estes, D. (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1), 144-148.
- Windle, M., Iwawaki, S., & Learner, R. M. (1988).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temperament among Japanese and American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547-567.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0월 27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